

시설딸기 표준진단표 갱신방향 설정 연구

박길석*, 김성란*, 정경진*, 장영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e-mail:pgs73762@korea.kr

The Study on Setting the method for renewal of Greenhouse strawberry Checklist for Consulting

Gil Seog Park*, Seong Ran Kim*, Kyeong Jin Jeong, Young Ho Chang*

*Gyeongsa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 약

농촌진흥청에서는 1998년부터 작목별 표준진단표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까지 60개의 표준진단표를 만들었다. 표준진단표는 농가경영 컨설팅을 위한 일종의 도구이다.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기술진보와 환경변화로 인하여 진단지표의 현행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가 현장에 맞는 표준진단표로 갱신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각 도원, 농가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갱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접방법은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방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리된 시설딸기 표준진단표 설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 시설딸기 표준진단표를 개발한 시기에는 시설하우스에서 토양재배를 기본으로 하였다. 2020년 현재 시설딸기 재배현황을 보면 수경재배와 토양재배가 병행되고 있으며, 점차 수경재배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시설딸기 표준진단표는 수경재배와 토경재배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시설딸기의 표준진단표는 수경딸기만 갱신되었고, 토경재배 딸기에 대해서는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토경재배용 시설딸기의 표준진단표 갱신이 필요하다.

표준진단표는 구조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농가 일반현황, 두 번째는 경영성과 지표 마지막으로 세부평가 진단표 이다. 농가 일반현황은 경영주 인적사항, 경영규모, 그리고 생산 및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하여 현행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표준진단표는 농가 일반현황에서 경영규모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토경 재배의 특성상 농기계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성과지표의 경우 기존 진단표는 수량, 경영규모, 판매가격률로 고정적 정량적 요소로 선정되어 있다. 갱신방향은 정량적 항목을 지양하고 정성적 항목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생산량의 경우 단순히 양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성적 항목으로 상품의 생산비용 등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영규모는 고정화되어 있는 항목으로 경영성과지표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요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농가별로 판매단가가 다르다. 이것은 품질의 속성도 있지만 경영주의 마케팅 및 홍보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매단가를 경영성과지표 항목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부진단항목은 크게 시설 및 자동화, 환경관리, 육묘, 작물관리, 경영관리로 구분된다. 세부진단항목의 갱신방향은 농가의 재배기술과 경영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영관리는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작목의 유사성을 찾아서 통일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4854032020)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